

2024
고2 문학
창비

2024 고2 문학 창비 | 1(1)(1) 사랑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사랑」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보기>에 작가인 김수영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어 및 시구를 해석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사랑'은 개인적 사랑을 넘어, 불안정하고 혼란한 시대의 고통을 견디며 나아가는 역사적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번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번개처럼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 김수영, 「사랑」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너'는 화자에게 '번치 않는 사랑'을 알게 해 준 존재이다.
- ②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번치 않는'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하는 사랑의 속성을 나타낸다.
- ③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은 변화하는 순간성을 표현한 것이다.
- ④ '꺼졌다 살아났다' 하는 '너의 얼굴'은 화자에게 불안을 느끼게 한다.
- ⑤ '금이 간 너의 얼굴'을 통해 번치 않는 사랑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시어나 시구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김수영은 6·25 전쟁으로 북한군에 징집되기도 하고 부산 포로수용소에도 수용되는 등 격변의 역사를 경험했다. 전쟁 이후 시 쓰기와 번역에 전념하던 그는 이승만 독재에서 4·19 혁명으로 건너가는 현대사를 통과하며 사랑과 혁명을 노래한다. 「사랑」은 고난과 희망의 역사적 교차 속에서 전개된 4·19 혁명 직전에 쓰인 작품이다. 누구나 겪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격변의 역사 속에서 개인이 겪어야 했던 절망과 기대를 담은 작품이다.

- ①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는 격변의 역사 속에서 개인이 겪어야 했던 절망과 기대의 순간들을 연상케 한다.
- ② 김수영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에는 '불안'마저도 포함되어 있다.
- ③ 김수영은 사랑과 혁명을 노래하며, '번치 않는 사랑'이 구현된 세상을 바랐을 것이다.
- ④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는 고난과 희망의 역사적 교차의 순간을 연상케 한다.
- ⑤ '번개처럼 금이 간'은 4·19 혁명의 실패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상태를 의미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김수영은 6·25 전쟁으로 북한군에 징집되기도 하고 부산 포로수용소에도 수용되는 등 격변의 역사를 경험했다. 전쟁 이후 시 쓰기와 번역에 전념하던 그는 이승만 독재에서 4·19 혁명으로 건너가는 현대사를 통과하며 사랑과 혁명을 노래한다. 「사랑」은 고난과 희망의 역사적 교차 속에서 전개된 4·19 혁명 직전에 쓰인 작품으로 개인적 사랑과 역사적 사랑을 절묘하게 통합하고 있다.

- ① 마지막 시행은 이별의 아픔을 내면적으로 승화하고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 ② 화자가 느끼는 불안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시대적 상황 속에 느끼는 정서로 볼 수 있다.
- ③ 화자는 1연에서 알게 된 사랑의 의미가 2연과 3연에서 달라지는 것을 '너의 얼굴'에서 확인하고 있다.
- ④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인이 말하는 '사랑'은 민주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시인은 개인적 경험과 혼란한 역사적 상황을 통합하여 '금이 간 너의 얼굴'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4.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시를 읽고 난 후 학생들이 나는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김수영은 6·25 전쟁으로 북한군에 징집되기도 하고 부산 포로수용소에도 수용되는 등 격변의 역사를 경험했다. 전쟁 이후 시 쓰기와 번역에 전념하던 그는 이승만 독재에서 4·19 혁명으로 건너가는 현대사를 통과하며 사랑과 혁명을 노래한다. 「사랑」은 고난과 희망의 역사적 교차 속에서 전개된 4·19 혁명 직전에 쓰인 작품으로 개인적 사랑과 역사적 사랑을 절묘하게 통합하고 있다. 그의 삶에서 사랑의 순간은 생성의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 ① 이 시에서 '너'는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하지만 창작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너'는 개인이 변화시키며 살아내야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지.
- ③ 그렇다면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개인적 사랑을 넘어 불안한 시대의 고통을 견디며 나아가는 역사적 사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그런데 '번개처럼'이라는 것은 화자가 겪는 불안한 시대적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
- ⑤ 역사적 사랑의 관점으로 볼 때, 화자는 '금이 간' 모습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5. 윗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둠'과 '불빛'의 대조를 통하여 어둠 속에서 빛나는 '너'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너'는 '나'에게 영원성과 항상성을 지닌 사랑을 가르쳐 준 존재이다.
- ③ '그러나'를 사용하여 시상 전개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찰나'는 '너'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 짧은 순간을 의미하고 있다.
- ⑤ '번개'는 '너'를 사랑하는 화자의 격렬한 감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신유형

「사랑」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 외에는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 화자의 정서 및 인식을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1연과 2연의 의미 대응 구조와 도치, 반복, 생략 등을 통해 사랑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사랑의 속성(의미)과 화자의 정서 및 인식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번개처럼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 김수영, 「사랑」

6.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며 주제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사물을 제시하여 냉소적인 태도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시적 배경의 변화에 따라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도 변화하고 있다.
- ④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의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⑤ 시상 전개에 따라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고 크게 하여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7.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관점에서 ㉡의 의미를 탐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기>

김수영은 6·25 전쟁으로 북한군에 징집되기도 하고 부산 포로수용소에도 수용되는 등 격변의 역사를 경험했다. 전쟁 이후 시 쓰기와 번역에 전념하던 그는 이승만 독재에서 4·19 혁명으로 건너가는 현대사를 통과하며 사랑과 혁명을 노래한다. 「사랑」은 고난과 희망의 역사적 교차 속에서 전개된 4·19 혁명 직전에 쓰인 작품으로 개인적 사랑과 역사적 사랑을 절묘하게 통합하고 있다. 그의 삶에서 사랑의 순간은 생성의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 ① 찰나의 순간에 금이 가며 깨어질 수 있는 유한한 감정이다.
- ② 불안정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을 수용하여 새 세상으로 나아가려 하는 주제적 행위이다.
- ③ 찰나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고통과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완성되는 가치 있는 감정의 상태이다.
- ④ 관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행과 변화의 순간을 삶의 일부로 파악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 ⑤ 끊임없는 이행과 변화의 과정에서 점차 개인은 배제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본질적인 불안을 일으킨다.

8. 윗글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화자는 변함없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 ②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 ③ 시적 화자는 파괴와 생성의 불안한 순간까지 끌어안는 사랑의 가치를 노래하고 있다.
- ④ 시적 화자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랑의 불변성을 깨닫는 역설적 인식을 하고 있다.
- ⑤ 시적 화자는 사랑의 불변성을 사랑의 과정이 변함없이 안정적이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

9.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ㄱ. 접속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ㄷ. 대립되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ㄹ. 반복과 생략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ㅁ.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행을 읽는 흐름에 변화를 주고 있다.
 ㅂ.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방식으로 친밀감을 보이고 있다.

- ① ㄱ, ㄴ, ㄹ ② ㄴ, ㄹ, ㅁ
 ③ ㄷ, ㄹ, ㅂ ④ ㄱ, ㄹ, ㅁ
 ⑤ ㄱ, ㄷ, ㅂ

1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김수영은 6·25 전쟁으로 북한군에 징집되기도 하고 부산 포로수용소에도 수용되는 등 격변의 역사를 경험했다. 전쟁 이후 시 쓰기와 번역에 전념하던 그는 이승만 독재에서 4·19 혁명으로 건너가는 현대사를 통과하며 사랑과 혁명을 노래한다.

- 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와 역사를 '너'로 표현하고 있다.
 ② 사회적 지향에 대한 작가의 갈망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③ 격변의 시대로 인해 개인의 삶이 고통을 받는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④ 시대의 변화를 파괴와 생성의 과정으로 인식한 작가의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⑤ 작가의 역사적 통찰을 통해 독자는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 번개처럼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 김수영, 「사랑」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랑의 불변성을 나타낸다.
 ② ㉡: 사랑의 대상인 '너'가 드러난다.
 ③ ㉢: 시상의 전환을 알려 주는 표지이다.
 ④ ㉣: 혼돈과 불안의 감정을 나타낸다.
 ⑤ ㉤: 사랑은 충동적 감정임을 나타낸다.

12. 윗글의 표현상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대립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② 열거와 대구로 주제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반복과 생략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④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시상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
 ⑤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행의 변화를 주고 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김수영은 6·25 전쟁으로 북한군에 징집되기도 하고 부산 포로수용소에도 수용되는 등 격변의 역사를 경험했다. 전쟁 이후 시 쓰기와 번역에 전념하던 그는 이승만 독재에서 4·19 혁명으로 건너가는 현대사를 통과하며 사랑과 혁명을 노래한다. 「사랑」은 고난과 희망의 역사적 교차 속에서 전개된 4·19 혁명 직전에 쓰인 작품으로 개인적 사랑과 역사적 사랑을 절묘하게 통합하고 있다. 그의 삶에서 사랑의 순간은 생명의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 ① 4·19 혁명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연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 ② ‘사랑’은 시인의 불행한 개인사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오게 한 원동력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계속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불행한 사건들을 돌아보며 개인적 사랑의 감정 속으로 숨고자 한다.
- ④ 이 작품의 ‘사랑’은 개인적 사랑을 넘어, 불안정하고 혼란한 시대에 대한 역사적 사랑을 나타낸다.
- ⑤ 사회적 책무와 개인적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결국 현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시인의 한계를 표현한다.

14. 윗글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A | B |
|---|----|----|
| ① | 사랑 | 번개 |
| ② | 사랑 | 불안 |
| ③ | 불안 | 사랑 |
| ④ | 불안 | 혼돈 |
| ⑤ | 사랑 | 사랑 |

15. 이 시의 각 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는 ‘번치 않는’의 시어를 사용하여 사랑의 불변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2연에서는 ‘꺼졌다 살아났다’를 통해 ‘너’에게 일어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2연에서는 ‘불안하다’를 통해 사랑에 대한 화자의 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3연에서는 ‘금이 간 너의 얼굴은’을 통해 불안과 균열을 포함하고 있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 ⑤ 1~3연에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과 불안, 혼돈을 포함한 사랑이 모두 진정한 사랑임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화자가 '너의 얼굴'을 '금이 간'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1연과 2연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랑이 변치 않으면서도 불안과 균열의 순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치 않는 사랑을 부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1연에서 화자가 '너로 해서' '변치 않는 / 사랑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1연의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을 통해 화자가 배운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연의 '너의 얼굴'이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갈 때 '꺼졌다 살아나'며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연의 '너의 얼굴'이 '꺼졌다 살아나'는 것에 대해 화자가 '그만큼 불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정답] ⑤

<보기>의 내용을 통해 위 작품이 4·19 혁명 직전에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19 혁명의 실패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상태가 해당 시의 내용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① 1연의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는 외부적 요인의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격변하는 역사를 상징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작품 속 화자를 작가 '김수영'이라고 할 때, 화자가 '사랑'을 변치 않지만 불안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김수영이 격변의 역사 속에서도 사랑과 혁명을 노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쓰인 위 작품이 사랑을 여전히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④ 윗글에서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는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중임을 의미하며, 이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난과 희망의 역사적 교차가 이루어지는 당대 상황과 관련지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정답] ①

윗글의 마지막 시행은 사랑이 불안과 균열의 순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별의 아픔을 내면적으로 승화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윗글의 화자는 '너의 얼굴'이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갈 때 '꺼졌다 살아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화자의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것은 격변하는 현대사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 속에 느끼는 정서라는 설명도 적절하다.

③ 1연의 화자는 '사랑'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변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2연과 3연을 거쳐 '사랑'이 불안과 균열의 순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너의 얼굴'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금이 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위 작품은 격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민주화에 대한 시인의 소망을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위 작품 속 '금이 간 너의 얼굴'은 '개인적 사랑'과 '역사적 사랑'을 통합하여 시인이 도출한 '사랑'의 역설적인 성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 [정답] ④

윗글의 '번개처럼'은 순간으로, 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화자가 겪는 불안한 시대적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윗글의 화자가 '너'를 통해 '사랑'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윗글의 '너'는 한 개인이 끌어안고 변화시키며 살아 내야 하는 사회로 볼 수도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윗글의 '사랑'을 역사적 사랑으로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금’은 부정적인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아픔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랑의 순간은 생성의 아픔을 동반’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과 시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정답 ②

1연에서 화자가 ‘너로 해서’ ‘변치 않는 / 사랑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윗글에서 ‘어둠’과 ‘불빛’은 변화하는 상황을 드러내며, 이를 대조하여 ‘너’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③ ‘그러나’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④ ‘찰나’는 ‘너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의미하므로 부적절하다.

⑤ ‘번개’는 파괴와 생성의 순간을 의미하므로 부적절하다.

6. 정답 ④

위 시는 ‘어둠’, ‘불빛’, ‘번개’, ‘금’과 같이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사랑’과 ‘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작품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① 윗글에서 인간과 자연을 대비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윗글에서 의인화된 사물을 제시하여 냉소적인 태도로 내용을 전개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윗글에서 시적 배경의 변화 및 그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⑤ 윗글에서 시상 전개에 따라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고 크게 하여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형상화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7. 정답 ②

윗글에서 ‘사랑’은 변화에 따른 ‘금’을 포함하고 있는 불완전한 것이며, 화자는 이러한 변화를 끌어안으려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랑’의 역설적인 속성을 격변하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관지어 이해한다면, 불안정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을 수용하여 새 세상으로 나아가려 하는 주

체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①, ③, ④, ⑤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8. 정답 ⑤

시적 화자는 ‘너’를 통해 ‘변치 않는 / 사랑’을 배웠지만,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하는 ‘너의 얼굴’을 보며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인식하는 ‘사랑’이란 결국 ‘변치 않’으면서도 불안과 균열의 순간이라는 ‘금’을 포함하고 있는 역설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1연에서 화자가 ‘너로 해서’ ‘변치 않는 / 사랑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연의 ‘너의 얼굴’이 ‘꺼졌다 살아나’는 것에 대해 화자가 ‘그만큼 불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시적 화자가 인식하는 ‘사랑’이란 ‘번개’라는 파괴와 생성의 불안한 순간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이 간’ ‘얼굴’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시적 화자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하는 ‘너의 얼굴’을 보며 ‘사랑’이란 결국 불안한 상황 속에서 ‘금이 간’ 것을 포함하여 ‘변치 않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정답 ④

ㄱ. ‘그러나’라는 접속어를 기준으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ㄴ. 3연에서 ‘번개처럼’을 반복하고, ‘금이 간 너의 얼굴은’과 같이 생략을 통해 연을 마무리하며 사랑의 역설적인 속성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ㄷ.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와 같은 구절을 통해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행을 읽는 흐름에 변화를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ㄹ. 윗글에서 시간의 흐름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ㄺ. 윗글에서 ‘변치 않는’과 ‘꺼졌다 살아났다’처럼 대립되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ㅁ. 윗글에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방식으로

친밀감을 보이는 것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절하다.

10. [정답] ③

윗글의 화자가 '불안'을 느끼는 것을 격변의 시대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고통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윗글의 '너'는 개인적인 사랑이나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역사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는 현실로도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위 작품은 한 개인이 끌어안고 변화시키며 살아 내야 하는 사회에 대한 애정을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를 통해 작가가 격변의 시대를 바탕으로 해당 작품을 창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윗글의 '번개처럼 / 금이 간 너의 얼굴' 등의 시구를 고려할 때,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파괴와 생성의 아픔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깨달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의 '사랑'은 개인적 사랑을 넘어, 불안정하고 혼란한 시대의 고통을 견디며 나아가는 역사적 사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문학 작품은 이러한 작가의 역사적 통찰을 통해 독자 역시도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게끔 하는 인식적 기능을 하므로 적절하다.

11. [정답] ⑤

'번개'는 파괴와 생성의 순간을 의미하며, 작품의 내용을 고려할 때 총동성과는 관련이 없다.

① 화자가 '너'로 해서 배운 '사랑'의 속성을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번치 않는'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너'로 해서 '사랑'을 배웠다는 것은 '너'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므로 적절하다.

③ '그러나'를 기준으로 사랑의 불변성을 노래한 1연의 내용과 달리 '사랑'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너의 얼굴'이 '찰나'에 변화하는 것이 화자에게는 '혼돈'과 '불안'을 느끼도록 하므로 적절하다.

12. [정답] ②

윗글에서 열거와 대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① '번치 않는'과 '꺼졌다 살아났다'처럼 대립되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연에서 '번개처럼'을 반복하고, '금이 간 너의 얼굴'과 같이 생략을 통해 연을 마무리하며 사랑의 역설적인 속성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를 기준으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와 같은 구절을 통해 도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3. [정답] ④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윗글의 '사랑'을 역사적 사랑으로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②, ③, ⑤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14. [정답] ②

1연에서 '너'로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랑에 대해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고려할 때, A는 '사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연에서 '너의 얼굴'이 상황이 변함에 따라 변화하여 화자에서 불안 야기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B는 '불안'임을 알 수 있다.

①, ③, ④, ⑤ 위 작품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15. [정답] ③

2연에서 화자가 '불안'을 느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너의 얼굴'이 변화하기 때문으로, 사랑에 대한 화자의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1연의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번치 않는'을 통해 화자가 배운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연의 '너의 얼굴'이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갈 때 '꺼졌다 살아나'며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⑤ 1연의 화자는 '사랑'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변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2연과 3연을 거쳐 '사랑'이 불안과 균열의 순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너의 얼굴'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금이 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목민배포음지